

광주·전남 체감 실업률 전국 최고

청년들 취직 못해도 中企 안간다

광주·전남지역의 잠재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도는 등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고용의 질적 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김병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은 15일 광주전남본부에서 열린 '2010년 제2회 지역경제포럼'에서 '광주·전남지역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2009년 광주의 체감실업률은 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의 실업률은 3.8%로 전국 평균(3.6%)에 근접했다. 전남은 실업률 1.6%를 유지했으나, 농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자 등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13.6%로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였다.

또 광주·전남지역 청년실업률은 각각 7.7%, 5.4%로 비교적 낮았으나,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각각 37.0%, 35.4%로 전국평균(40.5%)을 밑돌아 청년층 고용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08년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광주(3.8%), 전남(3.5%)로 인력을 제외한 전국 시·도보다 높았다.

지난해 광주의 고용률은 56.4%로 전국 16개 도시 중 부산 다음



1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0년 제2회 지역경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용률 광주 37%·전남 35%... 전국 평균 밑돌아

전남 경제 성장불구 취업자 감소 '고용없는 성장'

로 낮았고, 연간 고용률 평균도 55.6%로 전국(59.4%)보다 저조했으며, 전남은(66.3%)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비중도 광주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60%대 후반을 유지했으나 전남은 2005년 52.4%에서 2006년 52.0%, 2007년 51.8%, 2008년 51.0%로 계속 떨어지다 지난해에는 49.1%로 전국 최저를 기록해 노동력의 노쇠현상과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또 2009년 전남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각각 26.6%, 27.0%로 전국(11.2%,

11.4%)의 2배를 초과하는 등 다른 시·도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의 고용흡수력을 보여주는 취업계수에서 광주는 2008년 1.25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전남은 -0.03명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감소하는 고용없는 성장세를 보였다. 실제 주력업종인 화학, 1차금속·석유정제 등 제조업의 취업계수가 5.4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김병국 과장은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산업구조를 성장산업위주로 재편하고 인력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체감실업률**=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취업준비자 등 실업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을 나타낸다.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일자리 공급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고용문제를 정부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에 이를 전담하는 허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쇼핑몰 "무형자산을 팝니다"

곡성 섬진강 체험·축가 서비스 등 상품 내놔

옷과 액세서리, 신발, 책 등 손에 잡히는 상품이 주로 거래됐던 온라인 쇼핑몰에 축가나 체험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파는 쇼핑몰이 새롭게 등장했다.

지식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권장소비가 가격이 없는 무형자산이 소비재로 둔갑하고 있는 셈이다.

15일 전자상거래 통합 솔루션업체인 메이크샵(www.makeshop.co.kr)에 따르면 곡성군 고달면 마을 주민들은 최근 가정녹색농촌체험마을

(www.gvill.kr)이라는 쇼핑몰을 열었다. 이 쇼핑몰은 섬진강 하이킹과 떡 만들기, 과일 수확 등 계절별 체험 코스를 만들어 가족 단위 참가자들로 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체험마을 쇼핑몰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자체와 연계한 '곡성 섬진강 전문대 체험' 상품까지 새롭게 내놨다. 이 쇼핑몰에는 현재 한 달 평균 200~300명이 체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들르고 있다.

쇼핑몰은 결제수단이 없는 홈페이지

지나 블로그와 달리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다 사업자 등록 등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결제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성악을 전공한 음악도인 최연성(34)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포섬원(www.forsomeone.co.kr)의 주력 상품은 축가(祝歌)다. 결혼식 축가와 각종 기념일은 물론 프리포즈 축가까지 준비돼 있다. 이 쇼핑몰을 찾는 고객의 3분의 2는 예비부부로, 평생 한 번인 결혼식을 뜻 깊게 보내기 위해 찾는다는 설명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산업현장 위험관리 규제서 자율로

하남산단 등 1300여 사업장 광주노동청 시범사업 실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정책이 규제에서 자율로 바뀐다.

광주지방노동청은 15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과 인근지역 13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위험성 평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재해나 직업병의 발생 요인을 파악, 우선

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에 참여할 하남산단 및 인근지역 사업장은 광주노동청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노동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기술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한다. 또 사업장의 위험요인 평가기법을 보급하고 참여 사업장에 대한 사전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정순호 광주노동청장은 "이 사업은 사업주의 참여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스스로 재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산업재해율은 선진국 수준인 0.5%보다 높은 0.7%로, 지난 10여년간 낮아지지 않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월드컵 특수에 '날개돋친 닭값'

마리당 5000원대... '없어서 못판다' 물량 확보 비상

2010 남아공 월드컵 응원 열기로 치킨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초복까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와 생닭 가격이 오르면서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생닭 한 마리(1kg) 가격은 연초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2580원까지 치솟았다가 4월 1980원, 5월 1780원으로 점점 안정세를 되찾았으나 이달들어 첫째주 1880원, 둘째주 2080원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도 생닭 한 마리(1kg) 가격이 연초 보다 16.0% 올라 5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은

월드컵 응원 열기와 초복(7월19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때 이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보양식으로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닭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추세는 계속돼 아르헨티나전이 있는 17일 전후로 생닭 가격은 300~500원 가량 더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양계협회 광주·전남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월드컵에, 초복까지 다가오고 있어 생닭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물량이 없어서 생닭을 못팔 정도"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일품 진로' 새단장 출시

도수 낮춰 부드러운 맛 살려

(주)진로는 순쌀 100%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를 리뉴얼해 15일부터 시판한다.

'일품진로'는 알코올 도수를 30도에서 23도로 낮춰 기존제품의 강한 뒷맛을 줄이고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을 살려낸 것이 특징이다.

진로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빛은 증류원액을 천연 목통에서 10년간 숙성시킨 고품질 소주로 출고가는 7000원(용량 360ml)이다.

한편, 진로는 고객들이 여름철 참이슬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슬팩'을 주요 업소에 제공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光銀 대불산단지점 확장 이전

자유무역관리원 1층으로

광주은행 대불산단지점이 15일 영암 대불산단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사진)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이날 서종배 영암부군수와 지역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정문에서 대불산단지점 이전식을 개최

했다. 광주은행은 지점 이전을 계기로 대불산단지 기업과 직원, 서남권 지역민에게 고품질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대불산단이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확대를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우수 보청기입니다

▶ 편리합니다

▶ 가격에 만족합니다

SINCE 1982
www.kjhe.com

국제보청기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밝고 깨끗한 소리를 들려드리세요!